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30.(금) 간담회 시작(15:00) 이후 배포 2026. 10. 30.(금)

“청년 사회복지사의 든든한 울타리 되겠다”, 정은경 장관, 청년 사회복지사 소통의 장 마련

- 취업 초기 청년 사회복지사 및 예비 사회복지사 12명과 만나 응원과 현실적인 고민 청취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10월 30일(금) 15시**, **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**에서 현장의 **청년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등 12명**과 함께 **소통 간담회를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자리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딘 **취업 초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** 앞으로 복지 현장을 이끌어갈 **예비 사회복지사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**, 이들이 **현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.**

이날 간담회에는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복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**2030 청년 사회복지사 9명과** 자격 취득을 앞둔 **대학생 3명이 함께 자리했다.** **무거운 회의 형식을 벗어나** 마주 앉은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부터 현장에서 겪는 **생생한 일상과 고민들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고받았다.**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많은 길 중 **사회복지사의 길을 택해 준 청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**, 이들이 앞으로 **현장에서 펼쳐낼 활약에 큰 기대를 표했다.** 아울러 **취업 초기 청년들과 예비 사회복지사들이** 현장에 오며 가졌던 **기대와 궁금증**, 그리고 일하면서 마주한 **현실적인 고민들을 세심하게 경청했다.**

정은경 장관은 “**오늘 이 자리는**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, 우리 **청년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온전히 귀 기울이기 위해 만든 자리**다”라며, “사회복지사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듯, 정부도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**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고민하겠다**”라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눈 **청년들의 제안과 고민들을** 향후 **복지 현장 지원 및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.**

<붙임> 청년 사회복지사 현장 간담회 개요

담당 부서	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	책임자
		담당자
담당 부서	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	책임자
		담당자

붙임 **청년 사회복지사 현장 간담회 개요**

□ 개요

○ **(목적)** 취업 초기 및 준비 중인 청년사회복지사 현장 목소리 청취

○ **(일시) '26. 10. 30.(금) 15:00 ~ 16:00** (1시간)

○ **(장소) 염리종합사회복지관**(서울 마포구)

○ **(참석자)** 보건복지부 장관, 청년사회복지사 12명 등 약 15명

□ 세부 일정(안) ※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시 간	내 용
15:00 ~ 15:02	• 개회 및 참석자 소개
15:02 ~ 15:05	• 인사말
15:05 ~ 15:55	•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• 질의응답
15:55 ~ 16:00	• 정리 발언 및 기념 촬영